

한국인 EFL 학습자의 구술 담화에 나타난 담화표지 so의 편재성*

서 경 희

차 례

- I. 들어가기
- II. 이론적 배경
- III. 자료 및 방법론
- IV. 분석결과: 담화표지로서의 so의 기능
- V. 맺음말

I. 들어가기

1970년대 문장의 단위를 넘어선 담화에 대한 관심, 특히 구어(일상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구어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well, oh, you know, ok, I mean, anyway, now, so*와 같은 불변화사(particles), 감탄사, 부사 혹은 구들의 담화 속에서의 기능을 규명하려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형식언어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러한 표현들은 문장구조상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우며, 통사적 위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는 별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종종 ‘하찮은 단편적 표현’(little fragments)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담화분석 및 대화분석분야에서는 이러한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표현들이 가지는 기능이나 역할을 밝혀내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담화표지연구의 대표적인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연구임.

예로는 Schiffrin(1987)을 들 수 있다. Schiffrin은 영어에서 몇 가지 불변화사, 감탄사, 부사들이 담화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표현들을 담화표지(discourse marker)라고 부르고 있다.¹⁾ *So*가 담화표지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몇몇 기존연구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²⁾ 본 연구에서는 담화표지의 주된 기능을 담화상의 연결기능으로 파악한 Schiffrin(1987)과 Fraser(1999)를 따라서 *so*를 담화표지라고 간주하고자 한다.³⁾

*So*는 *well, you know, I mean* 등과 같은 담화표지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아왔다고 할 수 있고, 특히 *so*가 영어학습자의 담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cf. Anping 2002, Müller 2005).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구어 자료를 살펴본 결과 *so*가 거의 말채움어(conversation filler)로서 여겨질 정도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는데, 예를 들면, 흔히 사용되는 다른 담화표지인 *and*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쓰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so*의 과용 및 오용현상은 중국어가 모국어인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Anping 2002), 또한 학습자의 담화에서 *so*는 기능면에서 원어민과는 다른 분포를 지니고 관찰되었다(Müller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구어자료를 바탕으로 담화표지로서의 *so*의 텍스트구성 기능과 상호작용적 기능을 분석하는 것을 목

1) 담화표지(Jucker & Ziz 1998; Schiffrin 1987)란 용어도 사실은 통일된 것이 아니라, 화용표지(pragmatic marker)(Anderson 2001, Brinton 1996, Fraser 1996), 화용불변화사 (pragmatic particle)(Östman 1995), 담화불변화사 (discourse particle)(Aijmer 2002; Hansen 1998, Schourup 1985)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 지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용어들이 서로 자유롭게 호환되어 쓰이기도 한다. 또한 그 다양한 명칭만큼이나 그 접근방법이나 이론 틀들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고, 사실 어떤 요소를 담화표지로 할 것인지 혹은 그것들의 주요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서 담화표지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예를 들면, Schourup(1985)과 Östman(1995)의 경우 담화표지로서 *well, you know, like* 등만을 언급하고 있고, Aijmer(2002:2)가 제시한 29개에 달하는 담화표지목록에도 *so*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Fraser(1999)외에 Schiffrin(1987), Redeker(1990)에서도 *so*는 담화표지로서 분류되어 논의되고 있다.

적으로 한다. 즉, 학습자 담화에서 so가 주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며, 원어민과는 구별되는 이러한 독특한 쓰임이 비원어민 학습자의 어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담화표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담화표지 so에 대한 선행연구를 짚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학습자 담화에 나타난 so의 담화표지로서의 쓰임새에 관하여 실제 자료를 예로 들어 자세히 살펴본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담화표지란 무엇인가

앞서 so가 담화표지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언급된 바 있는데, 이는 담화표지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고 또한 해당 담화표지의 어떤 기능을 주요한 것으로 간주하느냐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담화표지의 정의는 담화표지가 지닌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cf. Brinton 1996: 30-31).

1. 대부분의 학자들은 담화표지의 주요 기능은 어떤 발화와 그 이전 발화와 관계를 표시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담화표지란 어떤 발화가 바로 이전 문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그 주요 기능은 앞으로 나올 발화가 바로 이전의 담화맥락과 가지는 특정한 연계에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며(Redeker 1990: 1168), 또한 말의 단위를 묶는, 순차적으로 의존하는 요소(sequentially dependent elements which bracket units of talk)(Schiffrin 1987: 31)라는 것으로 정의된다.

2. 어떤 학자들은 담화표지의 주요기능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였는데, 담화표지란 화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여러 개의 정보단위로 나누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서, 결과적으로 청자로 하여금 그 정보단위를 해석하는 과정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하는 표현이라고 정의된다(Erman 1986: 146).

3. 담화표지는 응답 신호로도 간주되는데 즉, 담화표지를 포함하고 있는 발화가 이전 담화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응답인지 또는 연속인지를 나타낸다(Levinson 1983: 88).

4. 담화표지는 또한 대화의 연속성을 성취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즉, 담화표지는 대화에서의 잠재적인 공백(potential gap)을 메우는 관계적인 방식으로, 담화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Crystal-Davy 1975: 88-91), (대화사이의) 침묵을 채워주고 화자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정리하는 동안에 화자의 말할 권리를 유지해주는 데 기여한다(Brown 1977: 109).

5. 담화표지는 “본질적으로 상호작용적”(essentially interactive)이라고 할 수 있는데(Stubbs 1983: 70), 이전 담화에 대한 화자의 반응 또는 앞으로 진행될 담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주관성 표지기능과 청자와의 관계, 공손, 친밀감 등을 나타내는 상호주관성 표지기능을 가진다(Brinton 1996: 31).

이상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담화표지는 말의 내용과 결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적 의미를 제공하고 또 담화에서의 연속적 관계(sequential relationship)를 해석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담화표지는 담화연결, 말순서 말기, 확인장치, 친밀도 신호, 주제전환, 말더듬기 표지, 담화경계 표지, 말채움어, 촉구장치(prompter), 대화수정표지, 태도표지, 울타리표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담화표지의 다기능성은 크게 텍스트구성 차원과 상호작용적 차원에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담화표지는 발화사이의 연계

관계를 표시하는 텍스트 구성적 기능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담화표지는 말순서 맡기나 울타리표지와 같은 상호작용적 기능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대인적 영역과 텍스트 구성적 영역은 서로 배타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담화표지는 대인적 기능과 텍스트 구성적 기능을 공히 가질 수 있다. 어떤 담화표지는 의사소통과정에서 (담화사이의 연결 관계를 알려주는) 일종의 길잡이기능을 하며 동시에 화자의 감정 상태나 태도를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두 기능 중의 하나가 더 우세할 경우에는 일차적 기능과 부차적 기능으로 차별을 둔다. 예를 들면 영어담화표지 *now*는 대인적 기능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더 자주 쓰이고 더 원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 구성적 기능에 비하면 대인적 기능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위에서 열거된 담화표지의 특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담화표지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담화표지가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여러 층위란 텍스트 구성적(textual), 태도적(attitudinal)/상호작용적(interactional) 층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담화표지는 화제를 시작하거나 종결하거나 혹은 화제전환과는 같은 텍스트 구성 장치(text-structuring devices)로서 분석되기도 하고, 화자와 청자의 의도/화자와 청자사이의 관계를 표시해주거나 어떤 발화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표시하는 태도적 장치(stance marker)로 분석되기도 한다. 요약하면, 담화표지는 의사소통에서 지침이 되는 동시에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4) *Now*의 텍스트적 기능으로는 새로운 주제도입, 주제전환 등을 들 수 있고 대인적 기능으로는 화자의 친근한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now come on*) 혹은 화자가 인내가 부족함을 나타내기도 한다(*now wait*)(Aijmer 1996: 95).

2.2. 담화표지 so에 관한 선행연구

담화표지로서의 so에 대한 연구로서는 Fraser(1988), Schiffrin(1987), Redeker(1990), Bolden(2006) 등을 들 수 있다. Fraser(1988)는 so가 단지 결과를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해석은 해당 표지가 사용되는 상황맥락과 어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Schiffrin(1987)은 담화표지의 다기능성을 주장하면서 담화표지 so와 because를 비교분석하였다. Schiffrin은 이 두 표지를 각각 네 가지 차원 - 사건/상황사이에 사실에 근거한 관계(fact-based relation), 지식에 근거한 관계(knowledge-based relation), 행위 구조(action structure), 그리고 참여자들(participation framework) - 에 의거하여 설명하였다. 첫 번째, 사실에 근거한 인과관계는 개념구조(ideational structure)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John ate the condemned meat, so he fell ill.”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지식에 근거한 관계는 정보 상태 (information state)차원에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John's light is burning. So John is home.”라는 문장에서, 화자는 John이 집에 있을 때만 불이 켜져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John이 집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행위 구조 차원에서의 so의 기능은 어떤 상황에 근거한 행위를 들 수 있는데 요청이나 질문의 화행을 하기 전에 so가 서두로 나오는 경우가 그 한 예가 되겠다(예: So who would Al vote for?). 마지막으로 참여자들 차원에서의 so는 말순서 넘기기 구조에서 관찰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순서를 넘기거나 혹은 다음 말순서 화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쓰인다.⁵⁾ 특히 so가 발화 마지막에 생략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청자로 하여금 -이미 제시되었거나 혹은 화자/청자가 서로 알고 있는- 어떤 주장이나 추론을 이끌어내라는 지시라는 것이다. 이전 담

5) 다음의 발췌문에서 Henry의 so 발화는 상대방(Debby)이 말순서를 취할 수 있는 추이적정지점을 형성하고 또한 뒤이어 나타나는 Debby의 so로 서두를 마련하는 발화는 Zelda를 향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참여자 전환(participation transition)을 표시한다(Schiffrin 1987: 219).

Henry: that's—we spend it out of our own money

So: eh:

Debby: So, when Henry's gone, what do you do?

화의 결론(upshot)을 소개하는 *so*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단독으로 쓰인 *so*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련되는 추후 행동을 하게끔 촉구하는 데에 쓰인다 (Raymond 2004).

Bolden(2006)은 대면대화를 자료로 하여 *oh*와 비교하여 *so*를 분석하고 있는데, 담화표지 *so*는 ‘marker of emergence from incipency’로서 (a)이전에 종식된 행동궤도(action trajectory)를 다시 계속하고 (b)새로운 일련의 행동을 착수할 때 쓰임을 보인다. 즉, *so*로 시작된 발화는 선행되는 일련의 행동을 종식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경우에 새로운 행동 -예를 들면 새로운 대화 화제를 시작하거나 어떤 약속을 하거나- 을 착수하는 데에 사용되는데, *so*로 시작되는 발화는 화자 자신보다는 상대방에 초점을 두는 일련의 행동을 시작할 때 쓰인다. 즉, *so*로 시작되는 발화는 새로이 착수하는 일련의 행동이 마치 화자의 의제(on-my-agenda)에 한참동안 있어왔음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를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화대화에서 의례적인 (phatic) 안부 묻기와 간단한 답이 오간 후에 -특히 그러한 답으로부터 새로운 뉴스거리가 있음이 인지될 때- *so*로 시작되는 안부가 반복되는 경우(“so how are you”)를 들 수 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상세한 이야기를 더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⁶⁾

Yoo(1996)는 담화표지 *so*와 *now*가 원어민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담화표지 *so*와 *now*에 공통되는 담화기능을 새화제 도입, 부연설명, 요약, 결론제시라고 보고하고 *so*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기능을 (원인에 대한) 결과제시, 재구성(reformulation), 재진술(restatement), 그리고 논평(comment)임을 밝히고,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Yoo에 따르면 원어민에 의한 학술적 담화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so*의 기능으로는 부연설명, 재진술, 맺는 말(concluding remarks), 그리고 논점(concluding points)의 순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새로운 화제 도입이나 부연설명 등의 기능은 담화표지 *now*에서도 공히 나타나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어학습자의 자료에서는 비슷한 기능으로 *now*가 사용된 예는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화표지 *now*가 아예 관찰되

6) 이와는 대조적으로 *Oh*로 시작되는 발화는 화자자신의 생활과 관련되는 화제를 꺼내는 새 행위궤도(action trajectory)를 시작할 때 쓰인다.

지 않았다는 점이다. Johnson(2002)은 *so*가 질문을 시작할 때 쓰임을 지적하고 또한 화제를 전개하는 기능(topic developer)과 일련의 화제를 연결시키는 기능(topic sequencer)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담화표지로서의 *so*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의 담화에서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한 연구로서는 Anping(2002), Müller(2005), Kim(2006)을 들 수 있다. Anping(2002)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중국어 화자들의 작문에서 *so*가 과용 또는 오용된 것을 관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so*의 기능이 결과절을 나타내는 *so that*이나 *thus* 또는 *therefore*로 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Kim(2007)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의 구어와 문어자료를 바탕으로 *so*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형용사 앞에 쓰인 *so*뿐만 아니라 대용어(*pro-form*)로 쓰인 *so*, 그리고 목적절로 쓰인 *so*까지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원어민 화자와 학습자의 담화에 대한 방대한 코퍼스를 바탕으로 담화표지 *so*, *well*, *you know*, *like*의 담화기능을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으로 비교 분석한 Müller(2005)에서는 *so*의 기능을 텍스트 구성기능과 상호작용기능으로 분류하고 전자의 경우 결과 표시, 중점화제 표시, 요약/바꾸어 말하기/예를 들기, 순차성 나타내기(*sequential so*), 경계표지(*boundary marker*)의 다섯 가지 기능으로 나누고, 후자의 경우 의문문이나 요청 화행표지, 의견 화행표지, 암시적 결과 표시, 추이적정지점 표지(*marker of a transition relevance place*)의 네 가지 기능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아홉 가지 기능 분류에 의거하여 영어원어민 화자와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의 담화표지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원어민 화자가 담화표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적인 기능에 관해서는 공히 두 그룹에서 텍스트 구성기능이 상호작용기능보다 더 많이 관찰되었다. 또한 텍스트 구성기능에서는 원어민화자가 영어학습자보다 담화표지 *so*를 월등하게 많이 사용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상호작용기능에 있어서는 두 그룹 사이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이할 만한 점은, 추이적정지점 표지로서의 *so*의 사용에 있어서 영어학습

자가 사용빈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학습자들의 토론에서는 화행표지로서 so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또한 말순서 넘기기의 장치로서 so의 사용도 빈번히 관찰되었다.

Ⅲ. 자료 및 방법론

본 논문 분석 자료로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학습자의 그룹 토론을 사용하였다.⁷⁾ 이 자료는 지방소재 대학의 대학생들 사이에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그룹 토론으로서 그룹 구성은 성별, 영어숙달도, 수업시간에 보이는 학생들의 성격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즉, 영어숙달도가 높고 적극적인 성격인 학생들과 소극적이고 비교적 영어숙달도가 낮은 학생들이 섞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룹 토론의 주제들은 이전 시간에 간단히 논의된 것이긴 하나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임의적으로 한 주제가 선정되었고, 토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토론은 약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진행되었다.

담화표지로서의 so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비담화표지의 기능을 가지는 so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정도나 양상을 표시하는 부사(adverb of degree or manner),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관례화된 표현에 나타나는 so, 그리고 대용어로서 쓰인 so는 포함시키지 않았다(cf. Müller 2005). 다음은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보여준다.

(1) 정도/양태 부사

Justin: and there are so many circumstance using A. I.

(2)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Roy: Also there is un-man spaceship, so that machine

7) 본 논문의 자료를 녹음하고 전사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해 준 김미선에게 감사를 표한다.

can search the full universe.

(3) 관례화된 표현

Jo:... As you guys said, the intelligence machine such as the washing machine, and the cleaning machine and so on.

(4) 대용어로 쓰인 so

Jo: Why do you think so?

위에서 언급된 비담화표지로 사용된 so는 제외하고, so가 담화표지로 사용된 것 중에서 일차적 기능에 따라 텍스트 구성 층위에서 작용하는 것과 상호작용 층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텍스트 구성 층위에 속하는 기능으로는 (i) 인과관계를 표시하는 기능 (ii) 부연설명/요약/반복하기 기능 (ii) 담화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상호작용층위에 속하는 기능으로는 (iv) 질문이나 요청과 같은 화행의 서두를 제공해주는 기능과 말순서를 넘겨주는 기능이 관찰되었다(cf. Müller 2005).

다음의 예문은 so가 담화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예인데, 거의 매 문장마다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so의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5)

1. Jo: I see what you mean. So the machine is mean just a machine,
2. so when we can get some emergency, the machine don't have
3. any contingency plan, so there is no second plan, patient may
4. have problem, So Roy, do you have any idea about the risk?

예문 (5)에서 1번 줄의 so는 다른 참여자에 의한 선행발화로부터 결론을 이

끄는 데에 사용되었고, 2번 줄의 *so*는 부연설명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즉 기계는 단지 기계에 불과할 뿐이라는 진술 후에 그에 대한 부연설명으로서, 위급상태가 발생했을 때 기계는 만일의 상태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데에 *so*가 쓰이고 있다. 3줄의 *so*는 선행절에 따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patient may have problem”)과도 원인/결과 관계로 다시 이어지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고 하겠다. 마지막 줄의 *so*의 기능은 본 연구의 자료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으로서 말순서 넘기기 전에 사용되어 다음 화자를 지목하면서 그 화자에게 화행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 사이의 중복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담화표지 *so*는 기본적으로 요약표지(resumptive marker)로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담화 상에서 더 포괄적인(global)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담화표지 *so*가 요약을 하면서 동시에 화제를 마감하는 데에 쓰일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인 기능을 일차적인 기능으로 간주하여 담화경계표지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기능은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IV. 분석결과: 담화표지로서의 *so*의 기능

4.1 인과관계 표지

*So*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사전에서도 명시된 것이 바로 선행절과 후행절사이의 결과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선행 연구에서도 담화표지 *so*의 기능으로 언급된 바 있고(Blakemore 1988; Schiffrin 1987; Fraser 1990; Yoo 1996; Anping 2002 etc.), Müller(2005)에서는 이러한 담화표지 *so*가 구조적 층위뿐만 아니라 의미적 층위에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선택적인 요소라고 하면서, *so*의 기능은 청자로 하여금 선행절과 후행절과의 관

계를 해석하도록 돕는 언어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두 예문을 살펴보자.

(6) Jaqulien: vacuum, it is like a robot, it moves automatically to find dust so it cleans the room.

(7)

1 Roy: nowadays, the benefit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is that
2 people can reduce their working time by using this machine, so their
3 leisure time can increase and their welfare of their life will be
4 growing up. I think there are the benefits of using this intelligence
5 machine.

예문 (6)에서는 진공청소기가 로봇처럼 자동으로 먼지를 찾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방이 깨끗해진다고 진술하고 있고, 예문 (7)에서는 인공지능 기계의 이점을 논하면서 인공지능기계를 씀으로써 집안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또한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두 예문에서 담화표지 *so*가 사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청자는 두 절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원인-결과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화자는 담화표지 *so*를 사용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결과적인 해석을 하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화자 자신이 그러한 해석을 의도했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chiffrin(1987)은 담화표지 *so*가 개념구조에서 사실에 근거한 결과를 표시하는 것과 정보구조에서 정보상태에 근거한 추론을 표시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논문에 사용된 자료에는 사실에 근거한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만 관찰되었다.⁸⁾

8) 이와 관련하여 Biber et al.(1999: 877)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결과를 표시하는 *so*의

4.2 부연설명/반복/요약 표지(Elaborating/rewording/summarizing marker)

학생들의 토론 자료에는 담화표지 *so*가 선행발화를 요약하거나 반복하여 말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등의 부연설명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예문 (8)에서 그러한 *so*의 용법을 볼 수 있는데, Justin이 인공지능기계를 정의한 다음에 자신의 휴대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이 경우의 *so*는 *for example*등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8)

- 1 Justin: I think I have my handphone is intelligence machine.
- 2 Jo: Wow~! Is it really intelligence machine? I just see it as a
- 3 cellphone.
- 4 Justin: Ok, it looks like just cellphone, but it has function of
- 5 intelligence machine. Look at this. Hey Misty~ it is the button
- 6 of the intelligence voice. So when I click this, guys, “원하는
- 7 명령어를 말씀하세요” it recognize what I want to do,...

다음의 예도 *so*가 부연설명에 쓰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9)

- 1 Jaqulien: yeah, if you 그냥, just pull out the cart, and just drag

기능과 정보에 근거한 추론의 기능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묶어 “연결 부사(linking adverbials)” 로 분류하고 있다.

- 2 your card, but it is over. the counter
cashier doesn't needed
- 3 Roy: That's my MIS topic in last year, So
we presented Emart cart
- 4 market navigation. But if you know the
more information
- 5 about that please contact us.

예문 (9)의 선행맥락에서 마트에 가서 구입한 물품을 쇼핑카트에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물건값이 계산되는 시스템이 인공지능기계의 한 예로서 언급되었다. 따라서 마트에는 출납원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는 Jaquien의 주장에 대하여 3줄에서 Roy가 반응하는 맥락에서 Roy는 그 주제가 바로 자신이 작년에 MIS 수업에서 제시한 것임을 말하면서 *so*로 시작하는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다음은 담화표지 *so*가 선행발화를 다시 반복하는 기능으로 쓰인 예이다.

- (10)
- 1 Jo: I want addition some points, what the Hoeryong
said, what I would
- 2 like to say that it can give you some convenience,
also it can be
- 3 safe we use A.I. We can be more safe, because
the A. I
- 4 machines do some dangerous things instead of us,
5 so we can be in safe, in such a dangerous areas,
6 like treat nuclear, or when we go to some the
deep sea
- 7 when we find materials.

인공지능기계가 우리를 대신해서 위험한 일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전할 수 있음을 이미 언급한 맥락에서(3줄-4줄), 화자는 *so*를 사용하여

다시 한 번 요점을 반복하면서 연이어 부연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예문 (11)에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영화를 학기말 시험 후에 보러가자는 여담 후에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논점을 요약할 때 so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맥락에서 so가 요약표지로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4줄에 쓰인 두 번째의 so는 다음 말순서를 맡을 사람을 지정하고 요청 화행의 서두를 제공할 때 쓰임을 관찰할 수 있다.⁹⁾

(11)

- 1 Roy: How about going to video room with me? After final exam..
- 2 Jo: Okay, after final exam.. That's good idea. So, we have been talked
- 3 about lots of things here. We already covered some beneficial things
- 4 and risk things, So Soohyang, could you tell us about some wrap up
- 5 and summarize the beneficial things why we covered in this
- 6 discussion?

4.3 경계표지(boundary marker)

담화표지 so는 담화의 경계를 표시할 때 쓰이는데, 즉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거나 화제의 부분적 전환을 표시할 때, 혹은 (말 끼어들기나 여담 후에) 이전 화제로 돌아갈 때 또는 화제의 종결을 표시할 때 쓰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서는 특히 배경 설명 후에 토론 주제를 제시할 때 so가 서두로 쓰임이 많이 관찰되었다. 즉 배경설명 + so + 화제(topic talk)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9) 이러한 so의 상호작용적 기능은 4.4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12)

- 1 Jo: Ok, let's start our discussion. Today's topic I got
from TA in next
2 room. So I will read this topic first. The topic
said, what do you
3 think is the greatest benefit and the greatest risk
associated with
4 developing intelligence machine. Use your own
idea and opinions or
5 the ones given below; Give examples for your
choice. Ok, let's
6 discuss about this topic.

토론 진행을 맡은 학생(Jo)이 토론 주제를 옆방에 있는 조교에게 얻었다는 배경설명을 한 후에 *so*로 시작하는 발화는 새 화제를 제시하면서 담화의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so*는 선행 발화를 요약하면서 한 화제를 끝내고 담화의 결론을 맺을 때 사용되기도 한다.

(13)

- 1 Jo: Thank you for your opinion and let's wrap it up
the discussion and
2 something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machine
can give us so many
3 good beneficial things, also we can get dangerous
things maybe used
4 machine so we need to use it proper way, and we
need to know
5 what the exactly AI means, and intelligence
machine is, and use it in
6 proper way...

인공지능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하여 토론을 마친 후 Jo는 so로 시작되는 발화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so로 시작되는 발화는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거나 혹은 화제를 종결하면서 담화사이에 경계를 표시하는 데 쓰임이 관찰된다.

4.4 화행 시작표지(prefacing speech act)

앞서 논의된 so의 세 가지 기능이 텍스트 구성기능에 속하는 것이라면 화자가 화행을 시작할 때 그 화행에 서두를 제공해줄 때(prefacing) 쓰이거나 말순서를 넘기기 전에 서두를 제공할 때 쓰이는 so의 기능은 대화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인적/상호작용적 기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담화표지 so가 앞에 쓰여서 화행을 이끌 때 사용됨은 몇몇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Fraser가 제시한 예문인 “So tell me about this wonderful young man you're seeing”에서도 so가 요청의 화행에 서두를 제공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Schiffrin (1987)에서도 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담화표지 so가 설명(account)과 요청(request) 사이에 쓰여서 “선행담화에서 방금 동기가 부여된 행위를 표시함(mark the action which has just been motivated)”(1987: 208)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담화표지 so를 화행 표지로 분류한 Müller(2005)는 so가 요청이나 질문의 화행에 서두를 제공해주는 기능과 의견의 화행에 서두를 제공해주는 두 기능으로 분류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so가 요청이나 질문의 화행을 시작할 때 자주 쓰임이 관찰되었다. 예문 (14)는 그룹 토론의 앞부분에서 발화된 예인데, 토론 리더인 Jo가 그룹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토론을 이끌어가고 있다.

(14)

- 1 Jo: Ok, let's start our discussion. Today's topic I got from TA in next room. So I will read this topic first. The topic said, what do you
- 2

- 3 think is the greatest benefit and the greatest risk associated with
- 4 developing intelligence machine. Use your own idea and opinions or
- 5 the ones given below; Give examples for your choice. Ok, let's
- 6 discuss about this topic. So, first before the beginning discuss this
- 7 topic, why don't you define A.I means.. So, Roy?

6줄에 있는 담화표지 *so*가 요청 화행의 서두를 제공할 때 사용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바로 이어 7줄에 쓰인 *so*는 청자에게 말순서를 넘길 때 서두를 제공하는 장치로서 사용되었다. 즉 다음에 누구에게 말순서를 넘길 것 인지를 표시할 때 서두로서 쓰이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하여 *so* + 이름 혹은 *so* + (이름) + 화행(요청/질문) + (이름)의 패턴이 자주 관찰되었다.

다음은 담화표지 *so*가 말순서를 넘기면서 새로운 화행(요청)을 개시할 때 앞에 쓰임을 보여주고 있다.

(15)

- 1 Justin: and there are so many circumstance using A.I
- 2 Jo: Oh-that's good points. So why don't you hear from the
- 3 Soohyang's opinion?

아래 예문 (16)에서는 Jo가 인공지능에 관한 정의를 요약하고 나서 관련되는 다음의 화제로 넘어갈 때 *so*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화자는 *so*를 사용하여 다음 말순서를 받을 사람을 지목하고 다음에 취할 화행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so* + 이름 + (화행)의 구조를 보인다.

(16)

- 1 Jo: .. That's what AI means. In this time, why don't
you talk about the
2 intelligence machine and what the intelligence
means. So Justin,
3 Do you have any idea what the intelligence
machine exactly means?

담화표지 *so*는 다음 말순서를 말할 화자를 지목하거나 또는 다음 화자에게 화행을 수행하도록 발화함으로써, 대화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수행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적 층위에서 작용한다고 하겠다(Müller 2005, Raymond 2004). 특히 말순서 넘기기 표지(turn-transitional marker)로서의 *so*의 사용은 대면대화에서 많이 관찰된다(Raymond 2004).

유사한 맥락에서 담화표지 *so*가 그룹토론의 주요 화제인 ‘인공지능기계 사용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속하는 세부적인 화제로 나아갈 때도 쓰이는데, 예문 (7)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 후에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이점에 관하여 대화상대방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 쓰이고 있다.

(17)

- 1 Jo: That's all the common points, and we can move
the what the
2 intelligent machine means. So in this time, why
don't you discuss
3 about benefits of using these machine? ...

이처럼 *so*로 시작되는 발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할 때 쓰이고 있는데, 이는 *so*가 대면대화의 한 말순서에서 단독으로 쓰일 때 아직 진술되지 않은 결말을 투사(project)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위치에 쓰인다는 Raymond(2004)의 논의를 상기시킨다. 즉 *so*는 대화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는 맥락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예문(18)에서는 화자가 대화상대방으로 하여금 논의의 결론을 제시하도록 기대할 때 *so*가 “생략적으로” 쓰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18)

- | | | |
|---|-----------|--|
| 1 | Jaqulien: | A.I. has many good points, like, for example, it reduces the |
| 2 | | people's hard work and so people can enjoy free time, our |
| 3 | | life. also, by using this, people can get rid of and keep |
| 4 | | away the dangerous things, So.. |
| 5 | Jo: | Yes, that's a good point, and Roy? can you give me some |
| 6 | | summary about the riskness things associated with |
| 7 | | intelligence machine? |

담화표지 *so*의 상호작용적인 이러한 기능은 본 자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그룹 토론을 이끄는 학생의 발화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토론의 의제를 소개하고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역할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담화표지 *now*가 한 번도 관찰되지 않은 점에도 유의 할 수 있겠다.

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학습자의 그룹 토론 자료에서 관찰되는 담화표지 *so*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담화표지 *so*는 텍스트 구성 차원에서는 인과관계표지, 요약/반복/부연설명표지, 그리고 담화경계표지로 쓰임이

관찰되었으며, 상호작용적 차원에서는 화행 이끌기 표지나 말순서 넘기기 표지로 쓰임이 관찰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담화표지(*and, because, now*)에 비해 *so*가 자주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¹⁰⁾ 예를 들면, 대화 행위사이에 경계를 표시하거나 혹은 주요 화제에 속하는 부수적인 화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말순서를 넘길 때 자주 쓰이는 담화표지 *now*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cf. Aijmer 1996) 대신 *so*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쓰였다는 점이 학습자 발화의 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Anping(2002)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의 문어담화에서 *so*가 과용/오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서 (i) 문어와 구어와의 스타일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구어에서 *so*를 자주 사용하던 습관을 문어체 글에 전이한 점 (ii)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비경식적이고 구어적인 자료에 과다 노출된 점 (iii) 초기에 습득한 표현이나 혹은 쉬운 표현을 선호하는 학습자의 학습전략 (iv) 중국어(*gum*)로부터 부정적 전이 등을 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양의 그룹 토론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담화표지 *so*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왜 그러한 현상이 보이는지에 대해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담화표지 *so*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담화표지에 의해 월등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은 일단 발음의 용이성과 용례의 다양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하나의 쉬운 장치로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so*의 특성 때문에 특히 언어숙달도가 높지 않은 학습자에게는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모국어인 한국어의 수사구조상, 개략적인 논점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해 나가는 한국어 대화에서의 ‘역향 명료화’(retroactive elaboration) 관행에 연유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선행 맥락에서 제시된 논점에 정향하면서, 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요약/재개 표지(resumptive marker) *so*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Kim 2001). 이와 같은 시각에서 학습자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so*의 과용현상과 오용현상을 지적하고 이를 오류로 처리한 Anping(2002)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발화를 중

10) 그룹 토론에서 *so*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거나 혹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담화연결사라고 생각되는 담화표지로서의 *and, because, now*의 빈도수를 세어본 결과, *so*는 34회, *and*는 13회, *because*는 2회, 그리고 *now*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간언어(interlanguage)로 보고 *so*의 이러한 사용을 언어학습자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자 한다. 즉, 담화표지 *so*는 일종의 자기표현 전략(self-presentation strategy)으로서(cf. Wong 2000), 특히 언어숙달도가 낮은 학습자일 경우 논리성이나 응집성/결속성 등 발화문 간의 연결성을 단지 “나타내는 것(display)”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강하게 “주장하려는(assert)” 성향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담화표지 *so*가 전략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담화표지 *so*는 선행발화와 후행발화가 응집성 및 결속성이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상대방 화자가 이에 주목하도록 이끄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서는 *now, well*, 혹은 *you know*와 같은 담화표지가 학습자들에 의해 어떤 기능으로 쓰이며 학습자의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쓰이는 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인 용 문 헌

- Aijmer, K. *English Discourse Particles: evidence from a corpus*. Amsterdam: John Benjamins. 2002.
- Andersen, G. *Pragmatic markers and sociolinguistic vari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01.
- Anping, H. "On the discourse marker so". *New Frontiers of Corpus search*. Eds. P. Peters, P. Collins, and A. Smith. Amsterdam: Rodopi. 41-52. 2002.
- Blakemore, D. "'so' as a constraint on relevance". *Mental Representations. The Interface between Language and Reality*. Ed. R. M. Kempson, Cambridge: Cambridge UP. 183-195. 1988.
- Bolden, G. "Little words that matter: discourse markers 'So' and 'Oh' and the doing of Other-Attentiveness i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6. 661-688. 2006.
- Brinton, L. J.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6.
- Brown, Y. *Listening to Spoken English*. London: Longman. 1977.
- Cystal, D. & D. Davy. *Advanced conversation English*. London: Longman. 1975.
- Fraser, B. "Pragmatic markers". *Pragmatics* 6 (2). 167-190. 1996.
- _____. "Types of English discourse markers". *Acta linguistica Hungarica* 38. 19-33. 1988.
- _____. "An approach to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31. 931-951. 1990.
- _____. "What are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31. 931-951. 1999.

- Hansen Mosegaard, M.-B. *The function of discourse particle. A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spoken standard French*. Amsterdam/Piladelphia: John Benjamins. 1998.
- Jucker, A. H. & Y. Ziv. Eds. *Discourse markers: Description and theory*. Amsterdam: John Benjamins. 1998.
- Kim, K.-H. "Confirming intersubjectivity through retroactive elaboration: Organization of phrasal units in other-initiated repair sequences in Korean conversation". *Studies in Interactional Linguistics*. Eds. M. Selting and E. Couper-Kuhlen. Amsterdam: John Benjamins. 2002. 345-372.
- Kim, M.-S. "The Use of 'so' by Korean students in spoken and written discourse". Course paper.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7.
- Levinson, S. C.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P. 1983.
- Müller, S. *Discourse Markers in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2005.
- Östman, J. O. "Pragmatic particles twenty years after". *Organization in discourse: Proceedings from the Turku Conference*. Eds. Warvik, B. S.-K. Tanskanen, and R. Hiltunen. Turku: University of Turku. 95-108. 1995.
- Raymond, G. "Prompting Action: The Stand-Alone 'so' in Ordinary Conversation".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37(2). 185-218. 2004.
- Redeker, G. "Ideational and pragmatic markers of discourse structure". *Journal of Pragmatics* 14. 367-381. 1990.
- Schiffrin, D.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P. 1987.
- Schourup, D. *Common discourse particles in English conversation*.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85.

- Stubbs, M. *Discourse analysis: The sociolinguistic analysis of natural language*. (Language in Society Series 4) Oxford: Basil Blackwell. 1983.
- Wong, Jean. "The token 'yeah' in nonnative speaker English conversation".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33(1). 39-67. 2000.
- Yoo, B. "Discourse markers *So* and *Now* in English academic Spoken monologic discourse".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1). 81-95. 1996.

Abstract

The Ubiquitousness of the discourse marker *so* in Korean EFL Learners' spoken English

Kyung-Hee Suh

This paper attempts to account for the seemingly overuse of *so* in Korean EFL learners' spoken English from a discourse-pragmatic perspective. The data used includes group discussions among the college students. The functions of the discourse marker *so* are divided into those working at the textual level and those working at the interactional level. The total of 34 tokens were identified and their functions we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i) expressing result/consequence,

(ii) summarizing/rewording/elaborating (iii) marking discourse boundary or signalling the initiation/shift/closing of the topic and (iv) prefacing speech acts such as request or question or announcing who has the turn. The first three functions work at the textual domain, signalling relationship between clauses while the last function works at the interactional/interpersonal domain, marking the speaker's attitude and emotions. It is noted that the textual and interpersonal domains are not mutually exclusive. As such, *so* as a resumptive marker also functions as topic-switcher, boundary marker, action-prompter and turn-transitional marker.

The ubiquitousness of *so* seems to be accounted for in terms of the learners' strategy; the token *so* possibly serves as a self-presentational strategy. The nonnative speaker presents an image to the recipient as one who claims that his utterances are coherently connected to each other.

Since the nonnative speaker with limited command of English may feel the greater pressure to appear coherent and to successfully manage the interactional floor, the token *so* may provide one sort of means by which to do so.

Key words: Korean EFL students, discourse marker, textual function, interactional function, self-presentational strategy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 담화표지, 텍스트구성 기능, 상호작용적 기능, 자기표현 전략

논문접수일: 2009. 4. 20

심사완료일: 2009. 5. 20

게재확정일: 2009. 5. 30

이름: 서 경 희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어과

주소: (130-79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 대학교

e-mail: khsuh@hufs.ac.kr